책머리에

≪공간과사회≫ 3호를 펴내며

■

바야흐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개혁'이라는 용어가 어떤 정치집단이 자신의 통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사(修辭)로 점점 퇴락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개혁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다. 개혁의 시대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오류를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능동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현재의 적극적인 실천들을 요구한다. 물론 개혁이라는 주체적 행위가 강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산과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집단으로서 사회와 그 물적 토대이며 상징적 장소로서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명하며 동의반복적이긴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정체의 역사가 아니라 변화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간적 변화와 그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역사적 변화의 주요 갈림길에 서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변화란 사실 처해진 상황속에서 발생하는 사회공간적 갈등이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정 또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구조적 모순의 해소과정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변화는 인류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사회공간적 갈등이나 위기, 모순이 어떻게 극복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인간의 행위에 좌우된다. 최근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 사회공간적 상황의 변화, 나아가 국가간 또는 전 세계적 정치경제체제의 변화는 과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현재 우리가 어떤 위

www.kci.go.kr

치에 서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진단 및 자기예견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주체적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물결속에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권두논단>의 주제로 설정된 사회·공간적 '재구조화'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재의 변화과정을 포착하기 위한 용어이다. '공간 재구성과 서민생활'에 관한 제정구씨의 글은 정치가로서의 안목이라기보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얻은 삶의 체험을 근거로 사회공간적 재구성과정에서 공간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김덕현 교수는 자본주의 변화에 대한 보다 이론적인 이해의 틀로서 재구조화의 공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글은 공통적으로 재구조화과정에서 공간(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간을 무시하거나 신비화 또는 저평가한 그동안의 인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기획특집>의 주제인 '생태환경의 정치경제학' 역시 사회공간적 위기와 변화와 관련된 것, 즉 자본주의 사회공간속에서 야기된 환경위기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변화과정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번역된 제임스 오코너의 글은 그동안 정통 맑스주의에서 간과되어 온 환경문제를 그 이론적 틀속에 끌어 넣어 분석하기 위해 생태학적 맑스주의 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인간노동력과 자연환경 및 물적 토대로서의 공간을 함의하는 '생산조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봉착하게 된 환경위기와 그 대안적 사회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황태연씨의 글은 한편으로 맑스주의적 관점을 여전히 견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생태맑스주의의 입장에서 제시된 환경론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가 외연적 확대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환경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내포적 확대재생산과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상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과정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정치동맹을 강조한다. 김환석씨의 글은 맑스주의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스스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신슘페터주의에 기초하여, 현재 서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앞의 글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소 상이

www.kci.go.kr

한 이론적 기반위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경제적 변화과정의 중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강조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최병두의 글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정치경제의 변화와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과정을 서술하고 이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남한, 일본, 중국의 산업화 과정과 환경문제를 이들 국가간 관계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각 국가들의 경제적·환경적 문제해결능력의 차별성과 이로 인해 국가간 지역협력체계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국가정책'을 성장, 환경, 분배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이달곤 교수의 글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을 서술하고 새로운 환경정책을 모색하면서, 환경친화적 경제발전과 국제적 및 국내에서의 통합적 환경관리체제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기획특집에 모인 글들은 모두 환경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실분석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이론적 시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들로 기획특집을 꾸민 것은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된 많은 문헌들이 출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과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론과 분석에 기초하여 연구·출판된 환경서적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간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보고>로서 김수현은 '계속되는 재개발문제와 그 해결방향'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재개발은 한 때 유행한 현상이나 연구대상이 결코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으며 따라서 주요한 연구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의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의 문제는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채 정리되어야 할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권오혁의 글에서 확인된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쟁점들로서, 이상헌은 최근 정부의 이른바 '신경제' 전략에서 무시 또는 희생된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김용창은 환경운동을 포함하여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운동에 대한 신사회운동론의 한계, 특히 공간(지리)적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www.kci.go.kr

마지막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 성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의의에서 두 편의 일반논문을 실었다. 이정재의 글은 경관연구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경제구조와 도시경관 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극히 상이한 사회경제체제하에서 발전해 온 서울과 평양의 도시경관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영아의 글은 도시토지의 자본주의적 이용 및 소유에서 발생하는 지대문제를 '지대추구이론'에 근거를 두고 고찰하면서, 양동 도심재개발, 목동 공영개발, 분당 신도시개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지대추구의 특성을 사례로서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젊은 연구자들의 글은 공통적으로 정치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의 지평을 확대하여 새로운 연구주제들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호에서 이미 알린 바와 같이 ≪공간과사회≫를 연 2회의 반년간지로 편집·출판하기 위해 편집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실무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호의 기획과 편집에 대해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을 기대하며, 정기간행물로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주제 및 필자의 발굴 등에 관해서도 많은 조언을 바란다.

1993. 12

최 병 두

www.kci.go.kr